

祭祀問題와 3種神器崇拜 비판 사건

김 승 태

3·1운동 이후 격양된 민족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제는 그 통치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식민통치의 무단적 본질을 유지하면서 민족의 분열과 회유책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언론·출판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民族紙로서 창간된 <東亞日報>는 1920년 9월 25일자 사설에서, 기독교와 祭祀問題를 논하면서 일본인의 3種神器에 대한 崇拜를 偶像崇拜로 매도함으로써 총독부로부터 無期 停刊 처분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 최초로 일본 神道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 사건을 발단 과정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神社信仰에 대한 이해와 이에 관한 총독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0년 8월 27일, 경북 영주군 문정리에 사는 權聖華의 아내 朴姓女라는 孝婦가 媳喪喪을 당하여 朝夕上食을 지성으로 받들던 중, 그 남편이 기독교를 믿게 되어 上食을 禁하자 남편과 이 문제로 언쟁을 한 후 남편의 불효한 죄과를 자신의 목숨으로 代贖하리라 하고는 시모의 神柱를 뒷동산에 埋安한 후 부근 냇물에 가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1920. 9. 1. 3면)

이 사건이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당시 中央青年會 총무이던 李商在의 「宗教上에도 朝鮮魂을 勿失하라」는 題下의 논평과 함께 보도됨으로써 기독교와 제사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여기서 李商在은,

“부모의 신주를 가지고 한 말로 「우상」이라 부르며 부모의 혼령 압해 절하는 것을 경솔히 「우상숭배」라는 일홈 아리에 타매를 하는 것이 었지 반다시 울켓다 할 수 잇스리요…… 나의 생각에는 오직 돌아간 부모를 사모하며 그리워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하면 었더한

형식으로 레식을 행하든지 다 반대할 수 업겟다 하겟스며 원리 조선사람의 도라간 부모의 령혼을 위하고 삼년 안에 조석상식과 혹은 평상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직 그 부모를 그리며 사모하는 효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교와 아모 상관이 업슬 쏴만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크게 적합되는 일일 것이다.”

하여 미신적인 태도만 아니라면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릇될 것이 없고, 오히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논평은 梁柱三 목사의 반박을 받게 되었다. 당시 宗檀南監理敎會 목사이던 양주삼은 이 사건은 상식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선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인정한 이상재의 전술한 논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 조상의게 제사하는 것을 조선정신과 조선혼을 보존한다 하면 그는 큰 오해라 나는 그 일에 찬성치 못하겠노라…… 조상의게 제사하는 것은 세계 인류가 다 경력하고 버서마리고져 하는 것이며 과학지식이 천단하고 종교사상(宗教思想)이 불일하고 도덕관념(道德觀念)이 유치할 때에 쓰던 일종 미신덕 풍속(迷信的風俗)이오 의식덕 도덕(儀式的道德)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므로 조상의게 제사하는 사람의 수효가 날노 감하고 달로 줄고 해로 감축커야 불구세 세계상에 한 사람도 업게 될 것이 명하도다.”(〈동아일보〉 1920. 9. 4. 3면)

이와 같이 양주삼은 祭祀問題에 대하여 극단적인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가 1930년대

에 가서 제사와 미신적 의식을 주로 하는 신사참배를 인정하였던 것은 그의 진정한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어려운 시련을 피하기 위하여 세속 내지 일제와 타협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監理會報> 1936. 4. 10)

어떻든 이러한 그의 제사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견해는 儒敎側으로부터 다시 비판을 받았다. 즉 유교측의 金允植은 양주삼의 견해를 비난하고,

대체 부모의 령혼을 추앙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개벽 이래로부터 시작된 정(情)의 표현(表現)이라.…… 도라고 부모를 추앙하는 생각을 간절히 하는 데는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더 조흔 것이 업슬가 하오.”(<동아일보> 1920. 9. 5. 3면)

라 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상재는 의논이 분분하던 자신의 前說을 보충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것은 각자의 자각에 맡기고 기독교에서도 종교문제화 삼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20. 9. 5. 3면)

이렇게 祭祀問題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자 <동아일보>는 9월 10일자 「祭祀와 偶像崇拜」라는 題下의 사설에서, 이를 정리하면서 “朝鮮의 祭祀는 一神思想에 違反이 되지 아니 한다.”고 논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祭祀”라 하지 않고 굳이 “朝鮮의 祭祀”라고 표현하고 “一神思想”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상당한 言外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는 祖先崇拜로서 祭祀儀式을 강조·조장하여 神道の 미신적 제사의식과 우리의 전통적 제사의식을 동일한 것으로 선전하여 儒敎側을 회유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의식 내지 神社信仰은 多神敎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8~1920) 「祭祀條」에 나타난 일본인의 제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祭祀는 祖先을 崇敬하고 報本反始의 精神을 顯彰하는 本邦古來의 國風으로서 반드시 宗教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本邦 敎政上 祭祀와 宗教를 나누어 그것을 統理하는 所以이다. 그리고 神社는 우리 民族의 祖先中 威德功業이 비교적 현저한 자의 神靈을 奉祀하는 壇場으로서 民衆崇敬의 中心이 되고 健全한 國民思想을 涵養하고 人心에 至大한 影響을 주는 것으로서

大正 4년(1915) 8월 府令으로써 神社에 관한 諸規定을 公布하여 神社奉祀의 範을 보였다.”

이와 같이 그들의 제사는 神社에서의 제사이며, 이는 그들의 天照大神 및 祖先의 神靈을 제사하는 미신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앞의 <동아일보> 사설에서 굳이 “朝鮮의 祭祀”라고 구분한 것은 제사와 관계된 일본의 미신적 제사와 先祖에 대한 追慕의 뜻을 가진 “朝鮮의 祭祀”를 구별하려 한 것이요, “一神思想”을 강조한 것도 多神敎的인 神道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동아일보>는 이 사설의 서두에서 기독교의 특색인 “一神思想”의 우위를 설명하면서, “朝鮮의 祭祀”라 하는 禮式이 出來한 由來와 그 精神을 思憶하면 決코 偶像을 崇拜하는 것도 아니요, 多神을 信仰하는 것도 아니로다.”고 논하고 있다. 이어 “朝鮮의 祭祀”가 孔子로 대표되는 東洋思想에서 유래하였으며, 孔子도 天을 信仰하는 一神敎者였다고 하고, 제사의 本意는 “祖先의 靈魂을 慰安하고 祖先이 存在하였던 事實을 忘記 아니하는 紀念的 觀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儒敎的 이념에 따른 “朝鮮의 祭祀”는 기독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래의 제사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우상숭배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선입견 및 초기 기독교인들의 무지의 소산으로 보고, “基督敎徒들은 前非를 覺하고 祭祀가 偶像崇拜가 아님을 力說하여서 此를 弊가 生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復活”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제사가 허례허식에 빠져 본래의 정신을 몰각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으로 吾人は 基督敎徒들이 祭祀를 偶像으로 思想도 非難하려니와 形式만 主로 하는 祭의 本意에 合치 못하는 行動도 可치 아니하다 하노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基·儒 절충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된다. 즉 同紙에 양주삼은 다시 이상재의 祭祀問題에 대한 논평을, “제사”를 “조선훈”이라고 신문에서 지 채낸 이상에는 금일 조선 사람의 심리상태를 리용하여 혹 예수교의 도리를 의심케 할 녀려”가 없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김윤식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헛된 것을 바리고 실디만 숭상하는 이십세기에 복음진리의 교훈을 받는 예수교인들은 정신덕 도덕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사를 폐지하거나 불구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제사가 헛된 풍속일 뿐이요, 도덕의 원리가 아닌 줄

을 새닷고 폐지할 줄로 믿노라.”(〈동아일보〉 1920. 9. 11. 4면)

라 하여 祭祀 廢止論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제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동아일보〉는 다시 9월 24, 25일자 張德秀가 집필한 「祭祀問題를 再論하노라」는 題下의 연재 사실에서 朝先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와 우상숭배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짓고자 하였다. 24일자 제1회분에서는 사회제도로서의 제사의 의미를 밝힌 다음, 25일자 제2회분에서는 우상숭배와 구별하여 제사의 本意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사와 우상숭배의 구분을 논하는 대목에서 우상숭배의 예로 일본의 '3種神器崇拜'를 거론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偶像崇拜의 第一顯著한 者는 木彫泥塑하고 粉面金身하여 神이 茲에 在하며 或 靈이 茲에 在하다 하여 이를 崇拜할 뿐 아니라 有時乎 이에 對하여 降祥降福을 祈禱함이니 이는 確實히 偶像崇拜라 할 것이오. 設或 人身을 模作한 偶像은 無할지라도 或은 鏡으로 或은 珠玉으로 或은 劔으로 그 他 何等 模樣으로든지 物形을 作하여 或處에 奉置하고 神이 茲에 在하며 或 靈이 茲에 在하다 하여 이에 對하여 崇拜하며 或 祈禱함은 一切 偶像崇拜라 할 것이니 大概 此理는 知者를 待하여 비로소 알 바 아니니 賢愚를 勿論하고 人의 知覺을 具備한 者는 반다시 廓然할지니 人手로 造作한 바 工과 匠匠의 彰施한 바 色이 엇지 神을 接할 수 있으며 神이 또한 엇지 이에 接하리오.”

즉 일본인이 神社에서 “神體” 또는 寶器로 떠받드는 3種神器의 崇拜는 賢愚를 勿論하고 사람의 지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치한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도 그 本意를 떠나 우상숭배화될 때 社會教化제도로서 이익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民知를 계발하고 民德을 증진함에 해가 되며 민중에게 기신을 확대시키는 것이라 하여,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상숭배적 神社의 제사의식과 총독부의 이런 행사 장려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 한국인들의 일본인의 神社信仰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즉 총독부는 그날로 이 신문을 발매 금지시키고, 총독의 이름으로 “右新聞紙는 安寧秩序를 妨害한다고 인정되므로 新聞紙法 第21條에 의해 그 發行을 停止함”이란 發行停止 指令을 내려 無期停刊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부수된 發行停止 理由書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總督政治를 批判함에는 公正한 理解를 하도록 힘쓰지 않고 根本的으로 總督政治를 否定하여 惡意的인 推斷을 내려 總督政治에 대한 一般의 誤解를 더하도록 힘쓰는 듯하다. 그리하여 本誌의 新聞에서 偶像崇拜를 論하여 일부러 我帝國國民의 信念의 中樞인 劔·鏡·璽에 대하여 無理解한 妄說을 들고, 다시 20世紀 印度를 引用하여 英國의 暴政을 論하여 은근히 이를 朝鮮과 對照시킴에 資하고자 하는 듯하고, 其 內容 또한 誇張虛偽의 點도 不少하여 帝國의 新聞紙로서 友邦과 國交를 阻害할 憂慮도 없지 아니하다. 編輯의 局에 當하는 者는 혹은 云謂할지도 모른다. 同紙의 言說은 決코 그런 偶意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나 都鄙의 讀者의 實際에 있어 이를 보면 同紙의 反映이 顯著한 바가 있어 健全한 一般思想을 惑亂함이 顯著한 바 있다. 以上 總述함과 如히 東亞紙의 言論은 到底히 統治의 根本方針과 相容되기 어려워 茲에 發行停止가 不得已함에 이르렀다.”(〈東亞日報社史〉 권1, p. 152)

이와 같이 그들의 변명이야 어떻든 〈동아일보〉停刊의 주요 원인은 일본 “帝國國民의 信念의 中樞인 劔·鏡·璽”의 3種神器崇拜에 대한 비판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無期停刊을 당한 〈동아일보〉는 이로부터 4개월 후인 이듬해 1월 10일에 가서야 停刊이 해제되고, 2월 21일에야 비로소 續刊되는 수난을 겪었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
-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8~1920)
- 〈東亞日報社史〉. (독립기념관 연구원)